

Hello! I am Sister Jane Mary Kelly. I was born in Carrolltown, PA and was the eleventh and youngest child in the family. When I was small I watched my mother bake bread, pies and cakes. It didn't take long for me to start trying my hand at it and I loved to do it and still do. I remember baking cookies one evening for Christmas. As soon as they came out of the oven, my brothers



snatched them up. So much for Christmas cookies! Baking bread is one of my favorite things. If there wasn't so many other things to do, I'd bake a lot more now.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n June 28, 1957 and was sent out to teach in September. Yikes! I really wanted to be a



nurse but had to wait for 13 years to be permitted to do that.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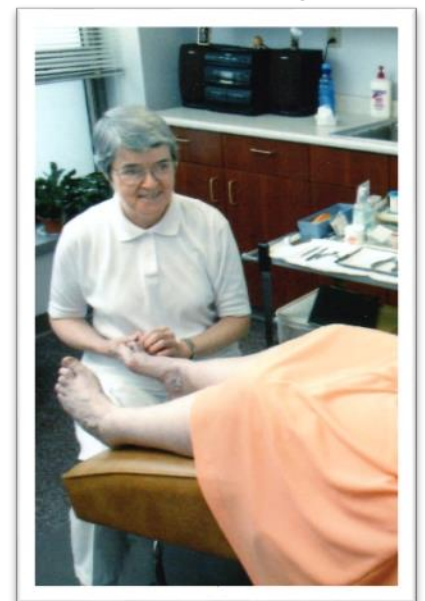
became an RN in 1973 when I graduated from Pittsburgh Hospital School of Nursing. I worked at Lee

Hospital in Johnstown for a year. There was an opening at Assumption Hall and I went there and loved working with our elderly Sisters. I studied to be a Nurse Practitioner. I also worked at St. Vincent Monastery, in charge of their infirmary. I then did

Home Health nursing out of St. Francis Hospital.

Later I became a massage Therapist and enjoyed helping our sisters and others. My main work now is helping our Sisters to have happy feet by removing corns, calluses and long toenails. Sr. He Chun Park has joined me in this endeavor. I also give a few haircuts and clean out wax from ears and help in the Laundry.

When I have time and energy, I like to bake a little bread. Lots of fun is had every day!





안녕하세요! 제인 메리 켈리 수녀(Sister Jane Mary Kelly) 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캐롤타운에서 열한 명의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엄마가 빵과 파이, 케익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덕분에
 일찍부터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었답니다. 저는 빵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해요. 재미있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크리스마스 쿠키를 만드는 중이었지요.

쿠키가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저의 오빠들이 잽싸게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그 많은 크리스마스 쿠키를요! 빵
 굽는 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할 일이 많지만 았다면 더
 많은 빵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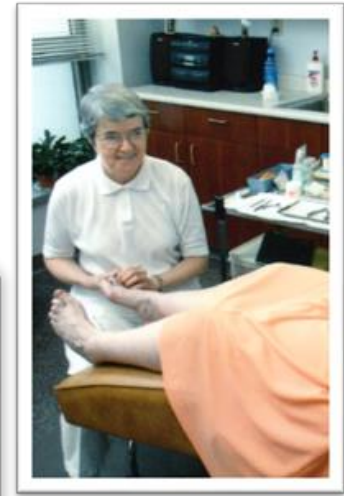
저는 1957년 6월 28일에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교사로
 파견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꿈이



이루어지기 까지 13년이나 기다려야만
 했어요. 1973년 피츠버그 병원
 간호학교(Pittsburgh Hospital School of Nursing)를 졸업하고 정식 간호사가
 되었답니다. 존스타운의 리 병원 (Lee Hospital in Johnstown)에서 1년동안
 일을 했어요. 승천홀(Assumption Hall)이 문을 열자 저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연로하신 어른 수녀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임상간호사가 되었고 성 빈센트 수도원(St. Vincent

Monastery)에서 간호 책임을 맡았으며 성 프란시스 병원(St. Francis Hospital)에서 가정간호를 담당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사지 치료사가 되어 우리 수녀님들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도와 줄 수 있었지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우리 수녀님들의 발의 굳은 살도 제거 하고 긴 발톱도 깎아 드리며 발
 관리를 도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박희춘 수녀님이 저와 함께 이 일을 해주고 있어요.
 또 수녀님들의 머리와 귀 손질도 해드리고 빨래도 도와 드리지요.



저에게 시간과 에너지가 조금 더 있다면 작은

빵을 굽고
 싶어요.
 저의 매일
 매일은
 참으로
 즐겁답니다!

